



조건불리직불제 폐지로 마을 공동기금 고갈

올해 공익형직불제 통합돼 정부 공모 참여 어려워 지역 내 찬반 논란도... 농민들 국회서 법개정 기대

제주도내 영농여건이 불리하고 정부 공모에 참여하기 어려운 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내 읍면지역에서 지난해까지 조건불리지역의 마을공동기금 폐지로 인해 마을공동기금 조성에 난항을 겪고 있다.

2일 제주특별자치도와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제주도내 읍면 지역에서는 지난해까지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직불금의 20~30%를 마을공동기금으로 조성·사용해 왔다.

조건불리지역직불제는 도서지역 등 농사짓기 어려운 지역을 조건불리지역으로 지정해서 농민들에게 직불금을 주는 제도이다. 농업 생산성이 낮고 정부 여건이 불리한 지역에서는 농업인들에게 소득을 보전해

주는 것이다.

하지만 올해부터 조건불리직불제·발농업직불제·친환경농업직불제·경관보전직불제 등 기존 5개 직불제가 공익형직불제(기분형·선택형공익직불제)로 통합, 시행되면서 조건불리직불제가 폐지돼 마을공동기금 조성이 불가능하게 됐다. 마을공동기금은 정부 공모사업 자부담으로 활용을 하거나 마을회관 개·보수, 농지 간이 기반 정비 등 정주여건 개선에 사용돼 왔다.

서귀포시 성산읍 한 마을회 관계자는 “그동안 연간 5000만원 정도의 마을공동기금이 적립됐는데 올해부터는 적립이 불가능하게 됐다”며 “현재

마을공동기금을 다 쓰고 나면 자부담이 들어가는 정부 지원 공모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고 하소연 했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정부는 당초 조건불리직불금의 30% 이상을 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해서 마을회관 개축 등 복지시설 조성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이후 발농업직불제가 시행되면서 형평성 문제가 거론됐다. 그래서 20% 이상으로 축소했고 이후에도 농가들의 반발이 사라지지 않아 육지부에서는 지난 2018~2019년에 폐지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농민들에게 주는 직불금의 일부를 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하는 것에 대해 지역내 찬반 논란이 있었다. 농민들은 왜 우리돈을 떼어 가느냐. 이에 반해 이장과 마을유지들은 기금이 없어 마을 운영이 힘들다고 하소연했다”면서 그래서 “마

마을공동기금 조성 문제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 달라고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 국회에서 관련 법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18년 조건불리직불금으로 일정비율(20%) 이상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마을공동기금을 지역실정을 고려해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 바 있다. 조건불리직불금의 일정비율 이상을 마을공동기금에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한 규정을 폐지해 기초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여건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마을공동기금 적립여부 및 적립비율을 결정하도록 했었다.

고대모기자 bigroad@ihalla.com



2일 제주도의회 제5기 읍부즈맨이 출범·위촉식을 갖고 활동에 나선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제주도의회 제5기 읍부즈맨 본격 활동

지역주민 등 총 56명 위촉 현장 개선사항 발굴·제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도민과의 교류 역할을 하게 될 제5기 읍부즈맨이 출범해 본격 활동에 나선다. 제주도의회는 2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출범·위촉식을 가졌다.

이날 위촉된 읍부즈맨은 43개 읍면동장이 추천한 지역주민과 직능단체 등에서 의정활동에 관심이 많은 도민 등 총 56명이다.

이들의 임기는 2022년 6월말까지로, 의회 상임위와 부합하게 5개 분과위원회로 나뉘어 도내 각 지역에서 활동하게 된다.

좌남수 의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현장에서 다양한 목소리로 제안 제보를 해주신다면 의회는 적극 수용하고 시정하는 절차를 밟겠다”고 약속했다.

읍부즈맨은 지역의 불편 부당한 제도·절차 또는 관행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 발전지향적인 시책제안, 지역개발·주민복지에 관한 개선사항 등을 발굴해 시정 또는 개선되도록 요구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도의회는 읍부즈맨이 활동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자긍심 고취를 위한 워크숍 개최와 상황에 따라 선진지 비교시찰, 운영위원회·분과위원회 지원, 읍부즈맨 수첩 제작, 우수 읍부즈맨 표창, 읍부즈맨 활동보고회 개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은지기자 eioh@ihalla.com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왼쪽 네번째)와 원희룡 제주지사가 2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제주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호영 “제주 제2공항 정상추진 해야”

국회서 제주예산정책협의회 “4·3특별법 적극 챙기겠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제주 제2공항은 제주를 새롭게 성장시킬 핵심 인프라”라며 공항 건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제주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주 원내대표를 비롯해 국민의

힘 이종배 정책위의장, 추경호 국회예결위 간사, 장성철 제주도당위원장,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했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원희룡 지사, 현대성 제주도기획조정실장 등 실·국장단이 참석했다.

주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제주도는 평화의 도시이자 특별자치도로서 글로벌한 위상과 제주도라는 독특한 브랜드 밸류를 가진 지역”이라며 “이같은 지역의 특성에 맞게 제주도에 특화된 맞춤형 사업과 정책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제주지역 제2공항 사업을 두고 현 정부가 다소 소극적인 입장”으로 보여진다고 “제주 제2공항은 이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일 뿐만 아니라 제주를 새롭게 성장시킬 핵심 인프라라는데 우리 국민의 힘은 제주도민과 인식을 함께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총선에서도 우리 당 차원의 공약으로 적극 추진 의사를 밝힌 만큼 공항 건설이 정상적으로 적기에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제주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우리 당의 이명수 의원 발의로 심사가 진행 중에 있다”며 “부당한 공권력의 폭력에 희생된 무고한 제주도에 대한 진상조사와 진실규명, 그에 합당한 명예회복과 배상·보상 조치 등의 내용이 법안에 충실하게 반영되도록 책임있게 적극 챙기겠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정부의 권력기관 개편 방침에 따라 제주자치경찰이 국가경찰로 흡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이 문제는 제주도와 제주경찰의 입장을 적극 참작해 당내 의견을 수렴해서 도움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원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강정 정수장 정비사업과 일본 EEZ 대체어장 원거리 출어경비 지원, 4·3특별법 개정안 연내 처리와 제주자치경찰 존치와 확대 운영 등에 대한 당의 지원을 촉구했다.

한편 장성철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은 이날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보장해 추가 개정법률안 발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장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4·3특별법 관련 이명수 의원실과 제주도당이 협력해서 좀 더 보장할 내용을 찾고 있다. 거의 막바지 작업”이라고 “그 과정에서 주호영 원내대표께 보고드리고 협력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국회=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지방노동위·도립미술관 대상 제주도감사위원회 종합감사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제주지방노동위원회와 제주도립미술관에 대해 행정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감사 기간은 지방노동위는 오는 18일부터 24일까지, 도립미술관은 26일부터 12월 2일까지다.

도감사위는 이번 감사에서 지방노동위는 2017년부터 추진한 업무 가운데 회의수당 등 예산 집행, 위원회 구성 및 사건 배정, 노동쟁의 조정

및 심판업무 처리 적정성 등에, 도립미술관은 2018년부터 추진한 업무 가운데 예산 집행 및 계약, 소장품 및 수장고 관리·활용, 전시실 운영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감사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도감사관 1명이 함께 참여하게 된다.

이와함께 감사위는 홈페이지를 통해 두 기관에서 추진한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사례,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 감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다. 접수기간은 지방노동위는 17일까지, 도립미술관은 25일까지다.

오은지기자

제주문학 자료 3차 수집

제주특별자치도는 내년 개관 예정인 ‘제주문학관’의 전시, 연구, 교육 등에 활용할 제주문학 자료의 3차 공개수집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기간은 오는 9일부터 27일까지다.

수집대상은 고대부터 1980년대까지 발간된 모든 장르의 제주문학 관련

자료다.

신청양식은 제주도청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한편 도는 제주문학관이 진정한 제주문학의 메카로 자리 잡기 위해 제주역사, 문화, 정체성이 깃들여 있는 자료를 집약적으로 수집하고 있다. 현재까지 2차에 걸쳐 84점의 제주문학 자료를 수집했다. 오은지기자

그랜드보청기

코리아세일페스타 할인행사
전장보험포함 제주 세류 업무 대행 해드립니다.

- 제품군1 - 70만원 이하 (40개 제품)
- 제품군2 - 70만원 초과 ~ 90만원 (105개 제품)
- 제품군3 - 90만원 초과 ~ 111만원 (125개 제품)
- 제품군4 - 111만원 초과 (37개 제품)

*제품군에 속하는 보청기 자유롭게 선택 가능합니다. 샵출들 혼자 전화 주십시오! 기다려주세요!

보청기 가격의 거품을 걷어냈습니다.

세계최초 인공지능 충전식 귓속형 보청기
제주도내 전지역 무료 방문 A/S 및 무료 청력검사
◁사무실 방문시 추가 할인쿠폰 증정▷

비충전식 보청기 60만원대부터
청각장애인 보조금 최대 131만원

NAVER에 **그랜드보청기**를 검색해 주세요

☎ 064-725-9275

한라일보 서사라 사거리 동쪽 100m 행복방직 건너편
제주시 서광로 240-1 (2층)

WIDEX HIGH DEFINITION HEARING

제주센터

와이덱스 보청기

국민건강보험, 청각장애인 보장구 지원금 확대 실시
최대 131만원 까지 지원

- 소리왜곡이 적은 자연스럽고 편안한 음질
- 보청기만을 연구·개발하는 덴마크 와이덱스 제품
- 왜 와이덱스 보청기 일까요?
- 일관된 청각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도 향상
- 믿을 수 있는 철저한 사후관리

이 제품은 “의료기기”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잘 읽고 사용하십시오.
판매점 : 와이덱스 보청기 제주센터

제주시청 CGV 광양사거리

상담예약 **064) 755.1005**

제주시 동광로 4, 삼옥빌딩 3층 (제주시청 광양사거리)

심의번호 2007-GN1-26-0155

국제보청기프라자

무료청력검사, 휴일예약, 출장상담 환영

정부지원 최고 131만원
[11만원+20만원(4년간 5만원씩 나눠서 지급)]

보상판매
27,000원 36개월 무이자 할부

- 작은 소리도 크게 들을 수 있습니다.
- 이야기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 대화를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시끄러운 장소에서도 대화가 가능합니다.
- 소리가 왕왕 울리지 않고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찾아오시는 길
● 제주은행 ● 한국은행
시외버스터미널 오라마을 ● 국제보청기(국가보증)
한라체육관 ● 시내수영장

대표 **임장완**

직접수리 · 당일착용
국제보청기 ☎ 743-7175

제주시 서광로 190 (한국병원 건너편, 국제기계 2층)

해외·육지 전문여행사

여행의 멋과 맛, 재미 모두 준비했습니다.

특가진행
6월~10월 까지

대형우등버스 1일 40만원 부터~
중형우등버스 1일 20만원 부터~

여행품질과 가격비교 자신있습니다.

육지 전세버스 보유업체

미도항공·미도투어
위치 : 제주시 용담1동(오라오거리) ☎ 713-1951
상담 유옥종 010-5015-1951